

[이명박 대통령 당선]

# 네거티브 시련 뚝심으로 돌파... 1년 2개월 1위 고수

## ■ 출마에서 청와대 입성까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선두를 지킨 끝에 19일 당선의 영광을 안았지만 그 과정에서 고난의 봉우리를 수차례 넘어야 했다.

이 당선자가 대권가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지난해 6월말 서울시장에서 풀러나면서부터. 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가 2년 3개월 동안 당 대표직을 수행하며 '당심(黨心)'을 장악하고 있었다.

더욱이 '7·11 전당대회'에서 박 전 대표를 등에 업은 강재섭 대표가 이 당선자의 대리인 격인 이재오 최고위원을 누르고 승리하면서 당내 경선에서 힘든 싸움을 예고했다.

이 당선자의 지지율은 9월말 추석을 넘기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지난해 10월9일 '북한 핵실험' 이후 선두로 올라섰다.

그러나 올해 6월11일 당 경선후보 출마 공식 선언 직후 자녀교육과 관련된 위장전입 사건이 터졌고, 뒤를 이어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재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쯤썸 겪어오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선 1주일 전에는 검찰이 이 당선자의 망형 상은씨의 도곡동 땅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극도의 위기

## 지난 8월 박근혜 누르고 한나라당 후보 선출

## ■ 출마·BBK 등 악재 때마다 '결단의 정치'

같이 싸웠으나 7월부터 이어진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한 한국인 납치사건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면서 8월19일 마침내 한나라당의 후보로 선출됐다.

한나라당 경선 직후 이 당선자의 지지율은 60%에 육박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깨끗이 승복하며 '이명박 대세론'에 힘을 보탰다.

이후 정동영 후보도 대한합민주신당의 경선을 거쳐 후보로 당선되며 그를 추격했지만 그 차이는 컸다.

그러던 11월초, 지루하던 대선 경쟁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출마라는 메가톤급 사건이 터졌다. 이때 이 당선자는 한껏 몸을 낮추며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모든 허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정치적 동반자, 소중한 파트너인 박 전 대표와 함께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위장 취업에 대해서도 즉각 사과하며 논란을 조기에 진화했다.

하지만, 이회창 돌풍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일부 조사에서 이 당선자의 지지율이 30%대 후반으로 떨어지면서 "마지노선인 35% 지지율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압박감이 고조됐다.

더욱이 대선을 한달여 앞둔 11월16일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고 주장하며 국내로 송환됐다. 대선 정국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이 당선자 측에는 "한 방에 전세가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확산됐다.

이번에도 이 당선자는 "내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당선 이후라도 대통령직을 내놓겠다"며 당당하게 대응했다. 특유의 뚝심으로 막판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더욱이 12월5일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당선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그의 지지율은 40%대를 회복했다.

투표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도 막바지 고비는 있었다. 당선 후에 족쇄가 될 수 있는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가 하면 투표를 사들인다고 이 당선자의 BBK 설립 발언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되는 악재가 겹쳤다. 그러나 더 이상 이변은 없었다. 이 당선자는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는 대응적 결단으로 분위기를 또 한번 반전시키며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내 12월19일 대선 승리를 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제 17대 대선이 끝난 19일 오후 6시 여의도 당사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압도적인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대한합민주신당 오종일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9일 밤 서울 영등포 당산동 당사 선거상황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 ■ 당선 공신 호남 주역은

## 정두언 책사·이종구 호남 공약 맡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는 작은 일을 마다 않고 뛰어든 호남 출신 인사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자를 보좌하고 도왔다.

호남 출신으로 이 후보 당선에 일등공신은 역시 정두언 의원이다. 정 의원은 이 당선자의 '복심(腹心)'으로 불릴 만큼 자타가 인정하는 '이명박계' 대표 선수다. 그는 이 당선자의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총괄기획팀장을 맡아 '책사(策士)' 역할을 했다.

정 의원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 고향이 광주이며, 본인도 어린 시절 상당 기간을 광주에서 보냈다. 이 당선자의 신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최측근에 속한다. 현대건설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사이로 이 당선자와의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두언 의원>



<김주훈 전 총장>



<이만의 전 이사장>

영광 출신인 김재식 동서대 교수는 의과 조직을 총괄하는 대외협력팀장을 맡아 당선에 큰 힘을 보탰다.

보성 출신인 이종재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이종구 의원은 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총괄간사로서 한나라당의 호남공약을 다듬는데 중심 역할을 했다. 김주훈 전 조선대 총장은 이 당선자의 대표적 영입 인사로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정두언 의원과 인척간인 김태욱 선대위 정책특별보좌관은 광주시

중에서 날카로운 논평으로 소금 같은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한나라당 상임고문인 유준상 전 국회의원은 각종 소모임을 통해 이 당선자의 외곽 조직을 만들었으며, 호남 미래연대의 전남 대표인 문일섭 전 국방부 차관 역시 최근 호남출신 예비역 장성의 지지를 이끌었다.

임동우 목포대 교수는 한나라당 정책자문교수단 단장을 맡아 광주·전남 교수단 지지선언을 이끌어냈다. 이만의 전 한경관리공단 이사장은 한영 최고위원과 광주시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광주 전역의 방송 홍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기세인 전 남도일보 편집부 국장은 언론정보로서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지역연인과 이 당선자 간 가교 역할을 했다.

광주일보 출신인 강성만 선대위 부대변인도 선거기간 내내 펼쳐진 범여권과의 치열한 기세다툼의 와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나라 "만세" 신당 "침통" 卍 "실망"

### ■ 각당 표정

◇한나라당=이날 오후 6시 각 방송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하자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는 기대했다는 듯 함성과 환호가 일제히 터져나왔다. 당사 주변은 이 후보의 지지자 수천명이 몰려들면서 일시에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다.

강재섭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종하, 박찬모, 배은희, 김성모 여론 선대위 부총장 등 주요 당직자와 선대위 간부들은 당사 2층에 임시로 마련된 대선종합상황실에서 TV 모니터를 통해 결과를 지켜본 뒤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승리를 자축했다.

당직자들은 또 'BBK 의혹' 등 선거 전 내내 시달렸던 범여권의 네거티브 공세를 곱씹으며 소회를 털어놓는 모

습을 보였다. 일부는 "10년만의 정권교체, 야당 탈출이 좀처럼 믿기지 않는다"며 감격을 표시했다.

◇대한합민주신당=대한합민주신당 당사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대역전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며 기대감을 꺾지 않았지만 막상 개표 결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승한 가운데 '더블 스코어 차'의 참패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안게 된 데 따른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종일 대표와 손학규 이해찬 김근태 정대철 한명숙 정세균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 등 오후 들어 속속 모여든 신당 관계자 100여명은 당사 6층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긴 침묵 속에 침통하고 굳은 표정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이회창 후보=19일 오후 6시 일

제히 발표된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회창 캠프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출구조사를 지켜보던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 강삼재 전략기획팀장, 이흥주 홍보팀장 등의 표정은 한결같이 굳어있었다.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세당 역시 참패의 충격에 빠졌다. 민주당은 19일 방송사들의 대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깊은 침묵 속에서 이인제 후보의 패배를 자인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후보의 득표율이 기대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으로 나오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허탈한 분위기 속에 가라앉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개강 1월 2일

주택관리사

광주고시학원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개강 1월 2일

주택관리사

광주고시학원

**베트남 국제결혼**

국제결혼! 선택이 중요합니다

800만원대로 매달을 찾아주세요

아오자이국제결혼

062)232-8966

010-5256-8966